



전남교육청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권역별설명회.

교사 대상 특성화·마이스터고 설명회

전남도교육청, 4개 권역 나눠 진행

전라남도교육청은 18일까지 전남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중학교 교감, 진로진학상담교사, 3학년 담임교사 등 800여 명을 대상으로 중학교 진로진학 지도를 위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설명회를 갖는다.

이번 설명회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중학생들의 진로선택을 도와주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

증을 해결해주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에서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꿈과 비전을 제시하고,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정부 지원 정보 등을 제공한다. 또 공기업, 금융권에 합격한 학생들과 공무원, 금융권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영농 창업한 졸업생 등의 취·창업 성공사례가 소개된다. 또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교 담당자와 2020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 대해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했다. /전남=봉채영 기자

군산시, 중년여성 우울감 해소 온힘

군산시가 중년여성의 우울감 해소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군산시보건소는 여성의 우울감은 남성 3배 이상 높고, 특히 40대~50대 중년여성은 호르몬의 주기성으로 인해 남성보다 기분변화가 심해 우울 성향이 높을 수 있다며, 중년여성을 위한 마음건강 프로젝트 “다시, 봄”을 확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산시민은 누구나 보건소(군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마음건강클리

닉)를 방문해 간단한 검사로 최근의 우울 정도를 테스트 해볼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지속적인 상담과, 소득기준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의료비 지원(30만원 한도)도 받아볼 수 있다.

지난 4월과 6월에는 중년여성의 마음을 이해하는 특강이 공설시장 여성 교육장에서 개최됐으며,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설시장,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이동상담도 실시한다.

/군산=봉채영 기자

김제시, 향토산업육성 견학·워크숍

김제시 도농협력사업단은 지난 10일과 11일 양일간 6차산업의 우수사례를 직접 체험하고 배우는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을 통해 체험주체 간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제시 향토산업육성사업단을 추진하고 있는 김제도농협력사업단은 ‘로컬푸드 사업 다각화’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民), 산(産), 연(硯), 관(官)이 모여 만든 비영리단체이다. 여기에는 두월전노을관역, 외갓집영농법인, (농)동김제로컬푸드 공취사랑, (사)글로벌투게더 등 총 4개소가 체험주체로 참여하며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사업단 및 참여주체들은 야생



김제시 향토산업견학 및 워크숍.

화, 원예작물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체험학습 전문교육기관인 ‘벗넛’을 시작으로 100% 지역농산물을 사용하여 쫄면 제조, 전국으로 판매중인 ‘슬지네 제빵소’를 견학하여 김제시 6차 산업의 경쟁력 방안을 모색했다.

/김제=봉채영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20 | 해질 / 19:55

7월 12일 (금) 음력 : 6월 10일

수도권 날씨 28~20°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내년 하반기 한전공대 첫 삽

2022년 3월 개교 ‘청신호’
설립비용 7000억원 추산
8~9월 ‘기본계획안’ 확정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가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안을 의결하면서 오는 2020년 하반기 착공해 2022년 3월 개교 목표에 청신호가 켜졌다.

설립지원위원회가 지난 10일 의결한 설립 기본계획안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기본계획안에는 학교 체계, 교과 연구 분야, 학교 규모 등 세부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학 설립비용은 6000억~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립지원위원회 측 관계자는 1일 “정부 부처와 지자체, 한전 실무자들이 설립 기본계획안을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비공개로 결정된 기본 계획안은 오는 8~9월 결과가 나올 예정인 건축 기본계획안과 함께 언론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대학 설립비용은 6000억~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고 말했다.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안이 비공개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머지않아 설립 기본계획안을 발표할 것이라 예상이나 나온다.

대통령이 기본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대통령 선거 공약인 한전공대 설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힐 것이라 전망도 있다.

또 수천억 원에 달하는 설립비용 조달 등을 둘러싸고 정치권 일각에서 한전공대 설립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논란도 예상된다.

설립지원위원회 측 관계자는 “한전

공대 설립이 대통령 공약이고, 기본계획안이 의결되면서 설립비용 조달 등을 놓고 일부 정치권 등 한전 안팎에서 논란이 예상된다”며 “이를 극복하는 게 과제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한전은 에너지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에너지 특화대학이 필요하다고 보고 한전공대 설립을 추진해왔다.

한전이 지난해 9월 공개한 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한전공대는 학생 1000명, 교수 100명, 부지 120만㎡ 규모로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전공대 입지선정 공동위원회는 지난 1월 28일 전남 나주시 부영CC를 한전공대 입지로 발표했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개교 후 2022년부터 10년간 각각 100억원씩 총 2000억원을 한전공대에 지원하기로 했다.

/나주=김남중 기자 5555knj@metroseoul.co.kr

오늘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

‘빛의분수’ 주제 7시50분 개회식
5·18광장 분수대 합수식 등 진행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회식에서 광주가 쏘아올릴 ‘평화의 메시지’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구체적인 평화의 메시지는 베일에 싸여 있지만 주요 키워드는 ‘물’을 주제로 한 ‘생명’, ‘인류’, ‘바다’, ‘빛’, ‘광주정신’ 등으로 압축된다.

11일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대회 개회식은 12일 오후 7시50분부터 9시50분까지 2시간 동안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열린다.

개회식의 주제는 ‘빛의 분수’이며, 평화의 빛으로 치유된 세계의 물이 다시 순환하면서 미래를 변화시킨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민주화운동의 성지인 5·18민주광장 분수대에서 모티브를 얻었으며, 전 세계의 물이 민주평화의 정신을 품은 광주에서 하나의 물결로 솟구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빛’은 광주를 상징하는 키워드이자, 늘 시대의 어두움을 밝혀 온 광주정신의 발현이다.

지구의 생명과 인류문명을 품은 ‘물’을 주된 소재로, 광주의 평화정신과 남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 개최기간 17일간 (2019년 7월12일 ~ 7월 28일) ● 주간 통신사 연합뉴스
- 경기종목 6개 종목
- 등록 현황 194개국 7,507명 (참가 선수: 2,639명, 임원 1,550명)
- 경기장 5개소 (경기장 5, 훈련시설 2)
- 종목별 금메달 수 및 경기장 위치
 - 경영 금메달 42개 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
 - 다이빙 13개
 - 하이다이빙 2개 조선대학교 축구장
 - 아티스틱 수영 10개 영주종합체육관
 - 오픈워터 수영 7개 여수엑스포해양공원
 - 수구 2개 남부대학교 축구장
- 개막식 광주여대 시립유니버시아드 체육관 (2019.7.12)

자료/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도의 문화예술을 표현할 예정이다.

개회식은 식전공연 후 대회 VIP 입장, 국기계양 및 애국가 연주로 문을 연다.

이어 광주의 어린이들이 세계에서 가져 온 물을 5·18민주광장 분수대 물에 따르는 합수식이 진행되고, 하나가 된 세계의 물이 높이 솟구치며 대회 카운트다운을 알린다.

5·18민주광장과 개회식장의 공간을 이원으로 연계해 분수에 모인 물은 개

회식장으로 이어진다.

세계의 물이 광주에서 하나가 되면서 광주의 빛과 세계의 물이 만나는 환상적인 여정이 펼쳐진다. ‘생명을 품은 물’, ‘인류의 바다’, ‘빛의 분수’ 등 소재를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문화공연이 마무리되면 대회 참가 국가의 국기가 입장하고 대회 조직위원장과 국제수영연맹(FINA) 등의 환영사, 대회사, 개회 선언이 이어진다.

/광주=봉채영 기자 bcy2020@

전자랜드 ‘파워센터 정읍점’ 오픈

전자랜드는 전북 정읍시 연지동에 위치한 정읍점이 증축과 리뉴얼을 거쳐 ‘파워센터 정읍점’으로 재탄생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자랜드 정읍점은 2009년 6월 최초 오픈 후 약 10년간 운영됐다. 전자랜드는 노후화된 매장과 파워센터로 업그레이드를 위해 기존 1층 규모의 매장을 2층 규모 총 327평으로 증축하고, 내부 인테리어를 새롭게 단장했다.

파워센터 정읍점은 체험중심 프리미엄

매장으로 다양한 가전제품을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다. TV·의류관리기·안마의자·청소기를 직접 사용해 볼 수 있을뿐만 아니라 에어컨도 작동시켜 각 기능과 바람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계절과 트렌드를 고려한 매장 구성이 특징이다. 1층 입구를 들어서면 가장 먼저 모바일존과 IT존이 고객을 맞이하며, 안쪽에는 여름에 인기있는 냉방가전이 배치돼 있다. 2층에는 가정의 필수가전인 TV, 냉장고, 세탁기, 건



전자랜드 정읍점이 11일 ‘파워센터 정읍점’으로 재탄생했다. /전자랜드

조기, 주방가전들이 전시돼 이어나 혼수로 가전을 구입하는 고객들이 한눈에 제품들을 살펴볼 수 있다.

/김민서 기자 min0812@